

## 한글 전용과

# 한국학 연구의 문젯점

허옹

우리들의 과거의 글자생활은 순수한 한문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국민 교화에 큰 지장이 있음을 깨달아, 갑오경장 이후, 공문서에도 국한 혼용문을 사용하기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한 혼용의 초기 문제는 언문일치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저 한문에 한글로 써 토를 붙인 정도의 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문일치가 되지 않은 글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 반면 순 우리말의 어휘가 차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나, 현재도 역시 그러한 과정에 있다.

그 결과는, 그 귀찮은 한자를 배우고 쓰기 싫어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알릴 필요가 있는 글은 한자를 섞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자의 제한 사용이 제창되고 또 한자의 전폐운동까지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없던 큰 관심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애, 주로 국어, 국문학, 국사학, 동양사학,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학자에 의해서 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하나는 그 많은 한자어(중국어에서 차용된 말과,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낸 말을 여기서는 한자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 또 하나는 한문의 원전을 읽을 수 없으면, 이러한 여러 방면의 연구는 앞으로 누가 할 것이며, 또 동양의 전통의 계승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릴 터이니,

※ 필자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교수, 언어학전공.

이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중대한 것이다. 한자를 폐지한다는 것이, 우리 말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를 축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우리는 한국학이나 동양학은커녕, 서양학(?)도 할 수 없을 것이요, 편지 한장도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며, 한문의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없어져서는, 우리나라에는 동양학, 한국학은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 것이니, 이 과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한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백한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자를 폐지하면 그 많은 한자어가 다 없어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필자의 이 글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은 한자를 폐지한 글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한자어를 축출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많은 한자어를 쓰고 있으나 한자는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자어를 죄다 한자로 적었을 경우에 비하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수효는 더 많을 것이다.

이 글의 제목부터 한자어 특성이다. 「전용, 한국학, 연구, 문제, 점」등 모두 한자어이며, 순 우리말은, 「한글」이외에 두개의 토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모든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고 필자는 이 글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쉬운 말이기에 그렇지, 어려운 학문의 술어는 어찌 그렇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게다. 그러나 그것도 한가지다. 가장 어렵다는 철학을 두고 생각해 보자. 「철학」이란 말 자체부터 한글로 써서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 꼭 「哲學」이라고 써 놓아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자의 한글자 한 글자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자로 써 놓으면 뜻이 명백해진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哲」의 뜻에서 철학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념」도 그렇다. 이렇게 써 놓고 그 뜻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概念」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로 써야 그 어원이 분명해지고, 뜻의 파악이 쉽게 된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나, 그러면 「뻐스」는 bus로 써야 할 것이 아닌가? 「概」자와 「念」자의 뜻에서 「개념」의 뜻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 한자어는 한자로 써야 그 뜻이 곧 들어온다고 할는지 모르나, 이것은 기성세대의 습관에서 오는 것이다. 글자는 언어기호를 표기하는 수단이다. 언어기호와 표기 수단인 글자와의 관계는 차의적(임의적)이다. 즉 한 언어 기호를 표기하는데, 꼭 어떠한 글자이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란 언어기호는, 「學校」로 표기하든지, 「학교」로 표기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hakkyo"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언어기호와 글자의 관계는 임의적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學校」로써 「학교」란 언어기호를 적기에 습관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글자가 빨리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어린 세대는 「학교」에 더 익어 있다. 기성세대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곧 「학교」에 익숙해질 수 있다. 「철학」이니, 「개념」이니 하는 어려운 언어기호도 한가지다. 「학교」의 경우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름은 한자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서양으로 갈 때는 로마자의 명함을 찍어 간다. 우스운 일이다. 로마자로 써서는 다른 사람이 될 염려는 없을까? 어떠한 체계의 글자를 쓰거나 그 알맹이인 언어기호는 바뀌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한자가 없어지면, 한자어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뜻이 잘 파악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되는 사람은, 언어기호와 글자의 임의성을 잘 생각해 볼지며, 또 어린 아이들이 한자의 매개 없이도, 상당히 많은 한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관찰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나 우리말 가운데에 있는 한자어는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일본말이나 중국말에서 받아들인 것이 많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잘 통하지 않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포유 동물」과 같은 말은 꽤 어렵다. 이런 것은 「젖먹이(젖빨이) 짐승」으로 고쳐 부르면, 아주 뜻 파악이 쉬워진다. 한자를 축출하면 뜻이 파악 안된다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러한 한자어는 축출해야 뜻이 잘 파악된다는 사실을 관찰해 주시기 바란다. 어떤 수학자는 「함

수」를 설명하는데 무척 힘이 들어서, 이것을 「따름수」라 고쳐 불렀드니, 학생들의 이해가 훨씬 빨라지더라는 것이다.

동양적·한국적인 전통과 절연된 세대가 생겨난다? 이것은 정신적인 식민지를 의미한다. 심히 염려스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하여 한자 폐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는 길은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두가지 길이다.

첫째, 동양적·한국적 사고방식의 토대를, 자라는 젊은 세대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가려서 번역해야 한다. 한 사상의 섭취는 반드시 그 근원이 되는 원전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서양의 많은 서적들을 꽤 많이 읽고들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그 원전을 읽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번역을 통해서 읽는 것이다. 동양의 경우에 있어서만 한문의 원전을 꼭 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혹은 동양 원전의 번역을 읽을 때도,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할는지 모르나, 기독교의 성경을 읽는데 반드시 신자의 모두가 히브류어를 알아야 하는것이 아님과 같이, 한문의 원전도, 한자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알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 물론 성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히브류나 희랍, 나전어들을 공부해야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불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지는 천년이 넘는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불과 백년이 못된다. 그런데도, 오늘날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널리, 더 깊게 민중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원인도 있겠으나,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의 번역에 있다. 기독교는 우리 나라에 정착하면서 부터,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것을 한글전용의 방향으로 빨리 이끌어 갔다. 그러나 불경은 그렇게 되기를 못했다. 물론 이조 초기 세종때에 「석보상절」과 같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있었으나, 이러한 번역체는 계승·발달되지 못하고, 세조때에 간경도감에서 된 불경언해는, 오직 한문 원전을 읽는 보조적인 구실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이것 마저 그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한글전용의 성서에 의해서 우리말로 읽고 설법하는데, 한편에서는 한문의 원전을 그대로 읽어 내려간다. 여기에서 그 포교가 지연되지 않

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불교가 유교와 같은, 동양 고유의 사상이, 민중 속에 깊게 뿌리박기 위해서는, 그 성전들이, 한문 텍스트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하며, 민중 속에 널리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번역성전들은 한글 전용의 문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도 아니고서는 민중 속에 깊이, 널리 파고 들어갈 다른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번역은 누가 하며, 또 반드시 한문의 원전을 읽어야 하는 학자 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중학교에서 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고등학교에서 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문을 교육하기를 주장한다.(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이공계 진학 학생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의 한자·한문교육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다. 심히 흐리멍덩한 것이 한자·한문 교육이다. 이것은 국민 일반의 글자생활이 심히 혼란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필자는 해석한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글자생활이 한글 전용으로 낙착이 되고 난 뒤로는 한자·한문 교육은 재정비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한문 교육은 제이 외국어의 자리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서양 학생들이 희랍어나 나전어를 배우듯이, 우리들은 한문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어로서 배워야 한다. 한문은 어휘체계나, 문법체계에 있어서, 국어와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문 교사나 한문학 전공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국문학과나 국문학과에 한문학 전공 분야를 두어, 한문학 강의를 강화하든지, 또는 한문학과를 별도로 설치하면 된다. 문제 해결은 지극히 간단한 데 있다.

한문은 상당히 어려운 외국어에 속한다. 동양학, 한국학을 전공하는 몇몇 학자의 양성을 위해서, 국민 전체가 한자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 만일 동양적인 사고, 한국적인 생활 방식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어려운 한문의 원전을 읽어야 한다면, 우리는 옛날의 양반 계급처럼, 한 평생을 한문이나 읽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먼 옛날에 지나갔다. 우리들은 필요 있는 한문 문헌만 가려서 그것도 번역을 통해서 읽으면 족하며, 전문학자들은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한문을 연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 60年代에 있어 美國의 問題詩 를 만든 韓國의 素材 몇 가지

李廷基

1960년도에 미국에서 詩文學 부문에 대한 「풀리처」賞이 뜻밖에도 신진 시인인 「스노드그래스(W.D. Snodgrass, 1926~ )의」《胸針》(Hearts Needle)이라는 處女詩集에 주어졌다. 그 이유는 우선 작품이 모호한 표현을 벗어나 명료한 새 맛을 주면서도 낭만적 서정의 長詩로서 「아카데믹」한 詩風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960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새로운 詩風土의 謀反(Rebellion)이 舊世代(또는 前世代)에 대한 拒逆의 隊列을 이룩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sup>. 1912년의 寫像主義(Imagism)宣言 이래, 두 차례의 大戰을 겪고 50년대의 冷戰時期를 잇는 무려 40여년 동안, 世界를 향하여 咆哮하던 美國詩의 巨星들인 「월리스 스티븐스」(Wallace Stevens),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William Carlos Williams), 「T.S. 엘리오프」(Eliot),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하트 크레인」(Hart Crane), 「랜스」(John Crowe Ransom), 「마리언 무어」(Marianne Moore) 등이 거의 失氣를 하고, 새 세대의 시인들이 竹荀처럼 솟아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젊은 시인들은 그들의 선배인 上記한 白髮의 老詩人們에게 詩가 너무 어렵고 모호하며 팽팽해서, 마치 大學의 化學科 研究室에서 실험해낸 分子式처럼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던 것이다.

※ 필자 :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강사 영문학. 전공.

1) 李廷基, “60年代 美國詩의 新謀反”, 영어영문학, 28號, 1968년 各季號 참조.

이에 발마추어 新批評家들(New Critics)이 지배했던 당시의 「케니언 리뷰」(The Kenyon Review), 「시와니 리뷰」(The Sewanee Review), 「허드슨 리뷰」(The Hudson Review) 등 文藝雜誌가 차츰 신비평가들의 세력을 벗어났고 「포이트리」(Poetry)誌도 60년 1월엔 한결 명료하고도 알기 쉬운 詩를 쓴 새 詩人們을 10명이나 소개했었다.

이러한 때에, 「스노드그래스」의 《胸針》이 「풀리처」賞을 받게 됐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筆者가 이 小論考에서 意圖하는 것은, 미국에서 짧은 詩人們이 새 謀反을 일으킨 그 첫 信號旗 구실을 한 《胸針》의 素材가 바로 韓國戰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그 事實이다.

「윌리스 스티븐스」가 작고하던 바로 1955년 「커네디커퍼」州로 되돌아 왔을 때 그는 자기가 자기 故鄉으로 되돌아온 것이며, 그것은 「美國我(American ego)」로 되돌아 온 것으로서, 親美人, 反美人의 종족을 초월한 善한 勇氣와 희망의 상징인 世界我로 되돌아 온 것을 뜻한다<sup>2)</sup>고 했듯이, 《胸針》의 주류를 이루는 「韓國戰爭의 背景」은 곧 美國人 자신의 世界我라는 場所의 意味에 있어, 「미시시피」江 가에서 노래하던 휘트먼(Walt Whitman)의 詩背景的 場所와 거의—아니 완전히, 同質的인 意義를 지닐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같은 文學 내지 文化的 人間的 本質<sup>3)</sup> 문제에 적극 同意하는 韓國人の 한 사람으로서도, 이 《胸針》 속에서 그러한 것 외에 한국인이라는 인간이 갖는 특수하고도 착잡한 다른 여러가지 觀察을 지니지 아니할 수가 없다.

《胸針》은 「뉴욕」에서 1959년 11월, Alfred A. Knopf에 의해 「하드 페이퍼」의 單行本 「앤솔로지」로 처음 출판되었다. 詩는 모두 20편. 그것이 1,2部로 나누어져, 제 1부는 짧은 서정시들인데, 모두가 따로 독립된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詩想, 즉 韓國除隊軍人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로서, 戰爭에서 彷徨한 군인과 그의 不貞한 아내와 경박한 大學生 사이에 일어나는 不美스런 現代論理的 人間苦腦를 묘사한, 사색적이면서도 역시 순수 서정의 뼈아

2) R.H. 퍼어스, 「美國詩의 連續性」, Princeton, 1965, p. 393.

3) 筆者가 「아메리카」學會 主催 美國學세미나에서 發表한 (1968. 8. 21) 「詩文學的으로 본, 韓國에 끼친 美國文化의 영향」이라는 인쇄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픈 韻律을 담은 가락들이다.

제 2 부는 바로 詩集의 제목인 《胸針》(Heart's Needle) 그대로이며, 따로 小題目을 붙이지 아니하고, 1, 2, 3…… 10 까지 나가는, 서정시들이다. 여기서는 主人公과 자기의 어린 딸과의 대화를 엮어 나가는 것인데, 자세히 읽어 보면 어떤 경우는 딸이 아닌 아들인 것 같기도 하다. 筆者만이 그런 생각이 드는 듯 했지만, 「칼르 보드」(Carl Bode)라는 「南일리노이」州立大學校 教授도 역시

「어린 딸(또는 한 두 군데서는 아들)에 관한<sup>4)</sup>」.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胸針》이라고 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主人公은 戰爭에서 돌아 온 兵丁이 아내와 離婚을 한 후 혼자 남은 딸을 데리고 중얼대는 소리이며, 역시 제 1 부의 귀향병과 환경이 동질적이다. 그러므로 이 1, 2 부가 통털어 다 韓國戰爭, 바꾸어 말해서 2 次大戰 이후 인간을 좀먹는 전쟁의 껍껍한 遺產인 인생의 病弊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를테면 1 부의 “겨울의 꽃다발”(Winter bouquet)을 볼 때,

Her hán̄ds/estáblished,/last tíme/she léft/my róom,  
this dárk/arránge/ment fór/a wín/ter bóuq/uet:  
colléct/ed bít/terswéet, brít/tle-stémmed/Scotch bróom,  
perén/nial stráw-/flowers, gráss/es góne/to séed,  
lástly,/the dry/vagín/al póds/of mílk/weed.  
These rél/ics stáy/heré fór/her whén/she's awáy.

(그녀가 마지막 내 방을 떠나며  
놓아둔 이 겨울 꽃다발의 어둔 配合, —  
梅花노루발이며, 대공 연한 「스콧치」 金雀花,  
다면생 乾性花에, 한물이 간 풀잎들,  
개다가, 산인삼의 메마른 葉鞘 꼬투리.  
이런 遺品들이 그녀 대신에 여기 머문다.)

4) “變하는 美國詩의 모습”, 「美文化의 半世界」 (“The Changing Face of American Poetry,” *The Half World of American Culture*), 南일리노이 1964, p. 198.

5) 이 韵律分析을 번역된 우리말 詩行의 語句數와 비교해 주기 바란다.

Búlg/ing líke/a cóin/púrse fáll/en ón/the gróund  
of dámp/wòods, ó/vergráined/with móss,/móuld/and fróst,  
their húsks/are hórned/like/the Vé/nus'-combs/I fóund  
on Gá/ripán./Thóse/war yéars,/mány/a wife  
wándered/the fields/áfter/such pôds/to fill/lífe  
presérv/ers só/anó/ther mán/might nót/be lóst.

(이끼와 곰팡이와 서리 고물이 담뿍 묻어  
濕한 林間에 떨어져 있는 鋼鐵지갑처럼 불룩한 채,  
이 껴풀들은 내가 「가리판」에서 본 「비너스」조개 같아  
뿔이 돌았구나. 지난 戰爭의 세월 동안에  
허다한 有夫女가 들판에서 그런 꾸투리를 찾아  
護身棒을 채웠느니라, 다시 사내를 잃지 않으려.)

Nów/she's hóme./Todáy/I líft/ed thém,/like chárms  
ín the/March sún/shíne/to párt/the pôds/and blów  
white bûrst/of quíll/y weed/seed fór/the wide/árms  
and éyes/óf/the chíld/ren squéal/ing whére/they dríft  
acróss/the néigh/bor's crópped/làwnslíke/an áir/lift  
of sát/yrs ór/a consér/vatíve,/warm snów.

(이제 돌아온 그녀. 오늘 그 꽃들을  
난 번쩍 들었다. 三月의 햇볕 아래  
꾸투리를 갈라 하얀 솜털의 풀씨를 불면,  
뺨 눈 나비의 空輸나 말없는 흰 눈(雪)처럼  
이웃집의 깎은 잔듸밭을 떠나가는 모습이,  
소리치는 아이들의 허우적거리는 팔과 눈매 같은 魅力.)

와 같다. 여기서 물론 둘째 聯의 2, 3, 4 行은  
of dámp/wòods, ó/vergráined/with móss,/móuld and fróst,  
their húsks/are hórned/like the Vé/nus'-cómbs/I foúnd  
on Gá/ripán./Thóse war yéars,/mány/a wife

처럼 첫行의 맨 끝 韻脚와 다음 2行의 제 3운각들은

/      x      /

의 強弱強으로 보는 것이 차라리 좋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詩想과 感情에 따라서 強弱五韻腳(iambic pentameter)을 可變케 한 것이기 까닭이다. 이렇게 보면 그 2聯의 1行, 제 1운각, 第 3聯의 1行의 제 1, 2行의 제 3, 4行의 第 2운각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筆者가 그렇게 拍節하지 않는 까닭은 弱強(抑揚) 격조를 독자에게 제시하는 동시, 譯詩와의 字句를 맞추려는 筆者의 어려운 意圖에 호응시키려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음대로 拍節했다고 해서, 詩 본래의 律을 해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理由는, 특히 現代詩에선, 박자적인 운율(meter)과, 기타 모든 意味·感情·音量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리듬」의 完全 交響曲이 詩의 한 行律<sup>6)</sup>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상의 詩에서 「메터포」에 가득찬 抒情과, 조예깊은 音調에 思索的이며 「아카데믹」한 弊倫의 告發을 목격한다. 이같은 「스노드그래스」의 《胸針》 전체를 「헤이든 캐루스」(Hayden Carruth)라는 詩評論家도,

“「스노드그래스」가 묘사하는 재치는 그 누구에게도 뛰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詩는 그 以上이며, 가락이 무엇보다 抒情的이고 빈틈이 없으며, 意圖가 깊은 思念속의 倫理性을 지니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는 「랜스」(Ransom)派에 속하는 「아카데믹」한 詩人……<sup>7)</sup>”

이라 評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엘리오트」같은 전 세대적 詩人們이 사용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引喻(allusion)에서 오는 모호성은 없다. 아내가 방을 떠난 뒤 꽃병을 바라볼 때, 거기에 꽂힌 여러 꽃들은, 마치 자기가 전쟁터에 나간 동안 아내가 저질은 不貞의 증거처럼 서 있다. 이제 집(자기의 품)으로 돌아온 아내. 그 꽃들(아내가 사랑했던 遺產들)을 내던지면, 그 想像은 꽃씨—시시한 풀씨—들은 아이들(아내가 다른 사내들의 자식을 뱉더라면 낳았을)의 허우적이는 팔, 눈, 울고있는 소리로 번져온다.

이것은 「햄릿」형의 知性的인 歸鄉兵이 갖는 일종의 우유부단한 疑妻症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다. 「스노드그래스」는 이 외에도 “수수께끼” “수술(手術)”, “紅冠鳥”, “언덕위의 大學庭園”, “四月의 品目”…등에서 한결같은 이

6) 李廷基, “現代英美詩 講義와 翻譯에 對한 批判”, 「영어 영문학」 26 卷, 1968 년 夏季號, p. 115 참조.

7) 「포에트리」誌, 1959 년 11 월號, p. 118.

같은 깊은 觀照의 倫理的 「멜로드」로 「리비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詩들은 모두가 自敘傳的인 것<sup>8)</sup>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實際的 조건을 6·25 戰爭에 참전한 우리들 韓國人 자신의 現實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 미국에 있어 새로운 詩傾向을 이룩한, 또 하나의 韓國을 소재로 한 初期作品은, 그 다음 해인 1961년도부터 부쩍 이름이 높아진 「윌리엄 메레디스」(William Meredith)의 “담벼락 가에 앉아있는 韓國 아낙네”(A Korea Woman Seated by a wall)이다.

이 詩는 이미 그 전부터 여러 詞華集에 끼어 있었기 까닭에 아는 사람들 이 있을 줄로 믿어진다. 紙面關係上, 첫 2聯만 예 들어 본다.

Suffering has settled/like a sly disguise  
On her cheeful old face./If she dreams beyond  
Rice and a roof,/now toward the end of winter  
Is it of four sons gone,/the cries she has heard,  
A square farm in the south,/soured by tents?  
Some alien/and untranslatable loss  
Is a mask she smiles through/at the weak sun  
That is moving north/to invade the city again.

(괴롭다 못하여 이젠 老婆의  
쾌활한 얼굴위의 교활한 僞裝이란다.  
늦겨울인데도 허기와 잠자리보다 그리운건  
죽은 옛 아들이랑, 그 합성들이랑,  
軍幕으로 酸化된, 남쪽의 논aze 미이련가?  
都市를 침략하려 다시 北進하는  
가냘픈 太陽을 향해 얹지웃음짓는건  
異邦의 기막힌 壞失의 사연이란다.)

8) 「옥스포드」 美文學 指針書, 「스노드그래스」同項 參조.

9) suffering/has set/tled like/a sly/disgnise 처럼 모두 無韻詩로 할 수 있으나, 下行들에서例外가 많아진다.

A póst penetrates his dárk disgúise  
 Áfter his own concéption, líttle or lárge.  
 Cróssing the scáleless ásia of trúble  
 Where it séems no óne could gíve himsélf awáy,  
 He gíves himsélf awáy, he séts a scále.  
 Húnger and páin and deáth, the sórts of lóss  
 Dispúte our cómforts líke penínsulás  
 Óf no particular válue, pláces to fíght.....

(크고작건, 스스로의 概念을 찾아서  
 詩人은 자기의 어두운 假裝을 해쳐간다.  
 아무도 正體를 들어내지 않는듯한  
 騷亂의 비늘없는 「아세아」를 전너며,  
 詩人은 자기를 들어낸다. 비늘을 세운다.  
 굶주림과 고통과 죽음과 온갖 喪失은 그 원인이  
 싸워얄 고장들, 별 보잘것없는 半島들을  
 즐기는데서 얻는 우리의 慰安때문이라고 아우성친다.)

이 詩는 文章의 含意라든가, “untranslatable”(번역할 수 없는), “weak sun”(가냘픈 太陽), “scaleless”(비늘없는—가리워진 것 없는), “sets a scale”..... 등에 관한 어휘적인 「이미지」의 옮김이 本詩律에 맞추기가 매우 힘이 듈다. 즉 1聯에서는 4 박자 強勢律로서 叙事的인 對話의 rhythm이며, 2聯은 제 4 行부터가 정식의 無韻律行(Blank verse lines)으로 詩人 자신의 哲學 또는 詩論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이러한 古風의 詩律에 맞추어, 字句解釋아닌 번역 시로 現代語感을 완전히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Carl Bode도 그의 詩律을 평하여

「표면상 이 시률들은 거의 낚아보이고, 語句들은 판에 박은듯『로맨티지즘』派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常套語를 찾기 드물다. …새로운 개척이 있다<sup>10)</sup>.」

하여간 이 詩에서 우리는 韓國의 냄새를 「스노드그래스」의 그것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이 맡을 수 있다. 1951년 초가을 경 渡江이 금지된 서울의 市廳

---

10) Carl Bode, 前揭書, p. 202.

앞 덕수궁 담 밑에서 한 美軍服차림의 종군기자가 사진을 찍는 것을 筆者는 목격한 바 있었는데, 그는 자기 소개에서 이름이 William Meredith이고 詩人이라 했다<sup>11)</sup>.

바로 그 사람이 이 William Meredith 와 同名人인지 筆者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어쨌든 「다시 都市를 침략하려 북진하는/가냘픈 太陽을 향하여 억지 웃음 짓는 노파의 모습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韓國民族의 心情속을 걸어가며, 「우리」라는 자기네 美國의 行動을 비판하는 그 詩人으로부터 戰爭批判의 현대지성을 살필 수가 있다 하겠다.

물론 이 詩도 보다시피 전 古代의 난삽한 詩와는 달리 매우 명료하며 새로운 「로맨틱」한 巧妙性을 과시한다. Bode는 또한 이 詩를 「매슈 아놀드」가 詩의 試金石이라 부르고, 「에머슨」이 光彩라고 한 그러한 超越主義의 깊은 표현이 거의 없는<sup>12)</sup> 평의한 시라 했다.

아웅든 美國의 60 年代의 새로운 詩方向을 모색한 初期作品들 중에서 이렇게 韓國을 素材로 한 詩들이 소위 敵陣突破의 口實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리 韓國人에게 유달리 큰 觀心꺼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하겠다.

---

11) 당시 筆者와同行한 사람은 趙漢羽氏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現在 서울에 있다.

12) 前揭書, 李廷基, “60 年代 美國詩의 新謀反,” 영어영문학, 28 권, 1968 년도 冬季版 참조.